



# 백남준의 작품 속에 나타난 ‘통찰의 시간’

글 | 정현이 \_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haema@hansung.ac.kr

어느덧 또 한해가 저물어간다. 이상하다. 지구가 점점 더 빨리 도는 것도 아닐텐데 시간의 속도가 해가 갈수록 가속되는 것만 같다. 가속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혹은 원고의 마감일 단위로 마구 분절된다. 분절되지 않은, 막연한 덩어리같이 놓여 있는 연속체로서의 시간은 이제 상상하기 힘들어졌다. 여간 노력하지 않고는 시간을 주도할 수가 없고, 파편화된 시간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된다. 그러다 지치면 도대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시간의 정체에 대해 의문이 일기도 하고, 시간에 패배하지 않겠다는 난데없는 돈키호테 같은 투지(?)가 불타오르기도 한다.

## “회화를 한걸음 진보시키는 것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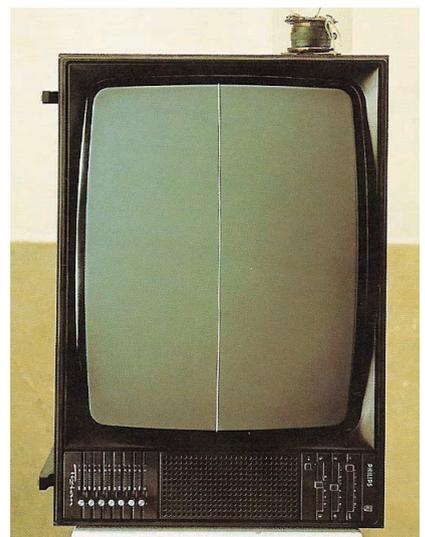
울초, 세계적인 예술가로 미술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백남준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일반에게 판매된 최초의 소니 비디오 카메라를 사전 예매하고 공항에 가서 찾아왔으며,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창밖의 교황 방문 장면을 촬영하여 그날 저녁 최초의 시사회를 가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미래에는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으로써 ‘세계 최초의 비디오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모든 기술도 인간화되지 못하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예술도 인간화되지 못하면 예술을 위한 예술로 전락한다”는 백남준의 발언 또한 과학기술을 예술과 접목시킨 그의 역할을 강조할 때면 늘 인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텔레비전이라는 대중 매체에 주목했던 당시 “회화를 한걸음 진보시키는 것은 회화에 시간의 요소를 투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웬지 잘 인용되지 않는다.

비디오 이전에 이미 영화라는 장르가 있었고, 영화는 분명 시간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압축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압축된 시간을 풀어보는 방식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필름영화는 결국 사진을 길게 이어 붙여 연속해서 보는 것인 한에서는 재현적이고 환영적이다. 그렇다면, 백남준이 이야기하는

비디오에 있어서의 시간의 요소란 무엇일까? 그것은 영화와 같은 종류의 것일까 다른 것일까.

우리가 백남준을 ‘비디오 예술가’라고 하지만, 사실 백남준은 퍼포먼스 작가로 출발을 하였고, 그의 초기의 대표적인 ‘비디오 작품’들은 대개 카메라나 비디오테이프가 없이 TV 수상기에 전기적 방해물 주어 나타난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가 텔레비전을 사용하여 최초로 행한 1963년의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인 ‘TV를 위한 선(Zen for TV)’은 고장난 TV를 90도 돌려서 설치한 것이었고, ‘마그네트 TV’는 흑백텔레비전에 강철 자석을 붙여서 화면의 왜곡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대표작인 ‘TV 부처’도 비디오테이프가 있는 작품이 아니라 폐쇄회로 작품이다. 즉, 테이프 없이 비디오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가 직접 모니터로 전달되어 영상으로 전환된다. 고물상에서 산 부처상을 TV 앞에 앉히고 그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TV를 보고 있는 부처의 모습을 부처가 보고 있는 TV에 나타나게 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부처는 ‘면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 TV’한 채로 명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TV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적어도 자기 자신의 영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많은 서양의 평론가들로 하여금 백남준을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들



TV를 위한 선(Zen for TV),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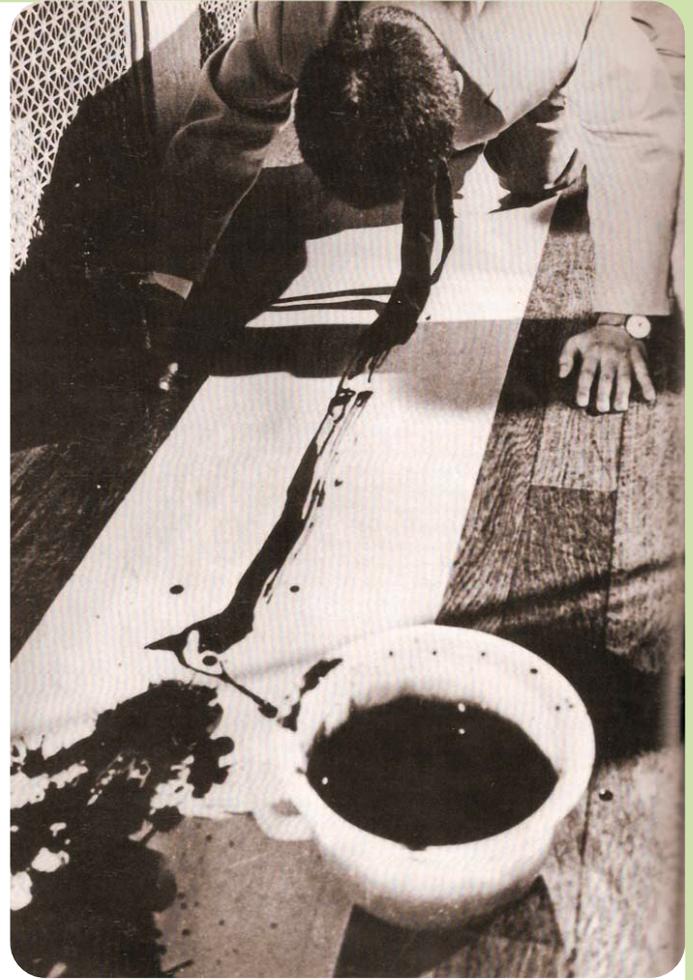
은 이 작품을 “육체를 벗어날 수 없는, 결국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의 현대적 나르시시즘”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서 갈채를 보냈다.

그가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한 작업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식은 다른 비디오 작가들처럼 나레이티브를 사용하거나 심리적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시각적인 것이었다. 마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TV 화면이 시시각각 변해가면서 만들어내는 빛의 효과에 관한 것이지 개개의 테이프에 담긴 영상의 내용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백남준의 비디오는 오히려 반시간적이고 망막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시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남준의 시간은 무엇일까.

### 작품 속에 녹아든 ‘찰나의, 통찰의 시간’

1932년에 태어난 백남준이 일본에서 미학과 예술사를 공부하고 독일에 도착한 것은 1956년이었다. 1958년 존 케이지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은 그는 공부하고 있던 전자음악을 그만두고 매우 과격한 퍼포먼스 작가로 돌변하였다. 존 케이지는 울고 싶던 아이를 쥐어박은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었지만 그는 생전에 존 케이지의 영향에 대해 철저하게 인정을 하였다. 백남준의 퍼포먼스는 피아노를 때려 부수고, 관객석에 앉아있던 존 케이지에게 달려들어 벡타이를 자르고, 음악을 연주하다 울고, 울다 갑자기 괴성을 지른다거나 객석을 향해 소변을 보기도 하고, 쌀을 뒤집어쓰기도 하는, 당시 신문의 표현으로는 ‘문화 테러리스트’의 짓거리였다. 당시의 서구인에게도 놀라웠던 행위가 1930년대에 태어나 10대의 대부분을 조선 땅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장의 사진을 본다. ‘머리를 위한 선(Zen for Head)’에서는 젊은 백남준이 머리와 벡타이를 이용해서 화선지에 선을 그리고 있다. 처음에는 먹이 아니라 붉은 잉크였다고 하는데, 잉크를 먹으로 바꾸어서 그는 이 퍼포먼스를 여러 번 재연하였다. 필자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국내 최대의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일제시대 거부의 막내아들이 1950년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겪었을 사상적 혼란을 짐작해본다. 그가 지나가듯이 경기중학 시절 마르크시즘이 유행이었고, 자기도 유행이라 마르크시스트였는데 6.25 때 자기 집에 들어온 인민군들이 기르던 개까지 다 잡아먹어서 피난을 갔다고, 피난을 가다가 폭격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더라고 한 말은 단지 우스개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그가 머리에 붉은 칠, 혹은



머리를 위한 선 (Zen for Head), 1961

먹칠을 하고 화선지를 들이받을 때 그는 이미 아나키스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가 한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 틈에서 홀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영어를 일본어처럼 하는 자그마한 남자”로, 반쯤은 코미디언 취급을 받으면서도 마침내 위대한 작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키스트로서의 그의 젊은 고뇌가 ‘진짜’였기 때문이고 용기라기보다는 배짱으로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백남준의 작품 속에서 ‘시간’은 다큐멘터리적인 실재시간도 아니고 압축된 영화적 나레이티브의 시간도 아니고, 내면을 성찰하는 심리적 시간도 아니다. 그의 시간은 어떤 틈새의 시간, 즐겁고 유쾌하게 바라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섬광처럼 빛나는, 어떤 찰나의, 마치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순간과도 같은 모든 것의 허망함을 이해하는 통찰의 시간이다. 그의 타계 앞에서 어쩌면 과잉 해석일지도 모르지만, 그의 한평생의 시간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본다. ㉔



글쓴이는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원에서 미술이론과 비평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갤러리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